

성별	여성	나이	69세	직종	양식기도금직	직업관련성	낮음
----	----	----	-----	----	--------	-------	----

1 개요

근로자 ○○○은 42세인 1987년부터 2000년까지 □사업장에서 브래징, 도금, 전해업무에 13년간 종사하였다. 이후 청소 서비스업에 종사하던 중 2002년부터 어지러움의 증상이 있었고 2004년 진성적혈구증가증을 진단받았다. 근로자는 상병발생이 □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노출되었던 유해인자에 의해 발생했다고 생각하여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.

2 작업환경

□사업장은 스테인리스 식기를 만드는 금속제조업체로 양식기 등 주방용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었고 현재는 폐업하였다. 현재는 사업장이 없어 사업장 조사를 실시하지는 못하였지만 근로자 및 동료근로자의 진술에 의해 작업 내용을 추정하였다. 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브래징(1987~1990), 도금(1991~1994), 전해연마(1994~2000)의 작업을 수행하였다.

과거 □사업장 작업환경측정 결과 사용한 화학물질은 주로 인산, 황산, 수산화나트륨, 트리클로로에틸렌(세척용)이 사용되었고 이에 대한 작업환경측정이 실시되었다.

3 해부학적 분류

조혈기계질환

4 유해인자

기타 화학물질

5

의학적 소견

○○○은 2002년부터 코피를 자주 흘렸다고 진술하였고 2004년 ○○대학병원에서 진성 적혈구증가증을 진단받았다. 진단 초기에는 사혈(phlebotomy)로 치료를 받았으나 2010년 경에는 수혈을 받아야하는 등 골수섬유화증으로 이행되었다. 음주나 흡연은 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복용하는 약물도 없었다.

6

고찰 및 결론

근로자 ○○○은 주방식기제조업체에서 브래징, 전해, 도금을 14년간 수행하였고, 해당 작업을 수행하면서 황산, 인산, 도금관련 중금속, 트리클로로에틸렌 및 유기용제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은 있다고 추정된다. 하지만 조혈기계암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유해인자에 근로자가 노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. 따라서 진성 적혈구증가증에 대한 업무관련성은 낮다고 판단하였다.